2026 - 2027 미국 겨울 여행 트렌드

'26. 11. 25(수) / 뉴욕지사

□ 배경

○ 거시경제적 전환점 속 소비자 행태의 구조적 변화 포착

- 2026년 하반기 미국 여행 시장은 고물가와 항공·숙박비 상승이라는 비용 압박 속에서도 경험 소비 열망이 공존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특히 2026 딜로이트 연말 여행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대 성수기인 연말 연시 여행 의향률이 팬데믹 이후 최저치(47%)로 하락하였음

○ 전통적 겨울 여행 공식의 해체와 신규 수요의 부상

- 스키·대가족 모임 중심이던 과거와 달리, 최근 미국인의 겨울 여행은 따뜻한 휴양지('Sun Seeker'), 근교 소도시, 성인 커플·나홀로·프렌즈기빙 등 비(非)전통적 형태로 재편되고 있음
- GLP-1 비만치료제 확산에 따른 웰니스 수요, SNS 바이럴 미식, 생성형 AI 기반 초개인화 일정 등 새로운 트렌드가 부상함

□ 2026 - 2027 미국 겨울 여행 트렌드

< 2026–2027 미국 겨울 여행 시장 4대 핵심 메가 트렌드 >

- **소비의 전략적 양극화(TripMaxxing)**: 항공·숙박 기본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미식, 프리미엄 호텔, 크루즈 등 핵심 경험에 예산을 집중하는 '트립맥싱' 소비가 주류로 부상(미국인의 62~65% 실천)
- **겨울 스포츠 퇴조와 온난화·문화 탐방 선호**: 겨울 여행객 중 설상 스포츠를 최우선으로 꼽은 비율은 4~6%에 불과한 반면, 따뜻한 휴양지(42%) 및 도시·박물관 문화 탐방(해외 31%)이 시장을 견인
- **근거리 자동차 여행(Road Trip)과 소도시 회귀**: 국내선 왕복 항공권 가격 급등(+17%)으로 추수감사절 여행객의 약 90%(7,290만 명)가 자동차를 선택했으며, 대도시 대신 드라이브 거리의 소규모 산악 마을이 급부상
- **전통적 가족 모임에서 성인 중심·목적형 여행으로 전환**: 겨울 여행의 68%가 자녀 동반 없이 이루어지며, 커플(35%), 나홀로 여행(18%), 친구들과의 프렌즈기빙 여행(Friendsgiving)이 증가하고 있음.

1. 거시경제 환경과 여행 예산 배분: '트립맥싱(TripMaxxing)'의 부상

○ 인플레이션 압박 속 예산 최적화 전략

- 프라이스라인(Priceline)이 발표한 '2027 여행 트렌드 보고서(Where to Next?)'에 따르면, 미국 여행자의 65%가 **특정 항목에서 절약한 비용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프리미엄 경험에 재투자하는 이른바 '트립맥싱(TripMaxxing)'을 실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42%는 고급 호텔 숙박비를 확보하기 위해 8시간 이상의 장시간 경유(Layover) 항공편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답했으며, 70%는 자국 통화 가치가 높고 체류비가 저렴해 예산을 최대한 길게 쓸 수 있는 목적지를 우선 선택한다고 밝힘
- 동시에 여행 빈도를 줄이는 대신 한 번의 여행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양극화 현상도 뚜렷한데, 여행자 보험사 페이(Faye Travel Insurance)의 2026년 연말 예약 데이터 분석 결과, 고객들의 연말연시 평균 여행 경비는 13,268달러로 전년 대비 81% 급증했으며, 1인당 지출액 역시 4,764달러로 전년보다 55% 상승하였음
- 반면 딜로이트 조사에서는 전체 여행자의 17%가 비용 절감을 위해 여행 일수를 단축하거나 저가 숙소를 선택하는 '다운그레이드'를 택했으며, 숙소 선택 시 '가격'을 최우선 3대 기준 중 하나로 꼽은 비율이 57%에 달해 타 요소(위치, 편의시설 등)를 두 배 이상 앞섬

○ 항공료 급등에 따른 자동차(Road Trip) 및 크루즈 회귀

- AAA(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전미자동차협회)의 항공 예약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추수감사절 연휴 국내선 왕복 항공권 평균 가격은 800달러로 전년 대비 17% 상승

* 휘발유 평균 가격 또한 11월 초 기준 갤런당 4.10달러로 전년 동기(3.07달러) 대비 크게 상승하였지만 가족 단위 차량 이동 시 항공료보다 경제적이라는 것이 우세

- AAA는 추수감사절 전체 이동 인원의 약 89.4%인 7,290만 명이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렌터카 기업 허츠(Hertz)의 조사에서도 연말 여행객 10명 중 6명(60%)이 높은 항공료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 여행을 선택하겠다고 밝혔으며, 추수감사절 사전 렌터카 예약은 전년 대비 16%, 크리스마스 및 새해 연휴 예약은 7% 증가함
- 추수감사절 기간 크루즈, 열차, 버스를 이용하는 여행객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260만 명으로 전체 교통수단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임. 특히 숙박·식사·엔터테인먼트가 한 번에 해결되어 추가 비용 예측이 가능한 크루즈 여행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대표적인 '가성비 휴양'으로 각광받고 있음

2. 목적지 및 계절적 선호도 변화: 탈(脫)설원과 소도시 · 장거리 분산

○ '겨울 여행 = 스키·눈' 공식의 붕괴와 선 시커(Sun Seekers)의 득세

- 스퀘어마우스(Squaremouth, 미국 여행자 보험 비교 및 구매 플랫폼)가 2026년 11월 3,000명 이상의 겨울 여행객(2026년 12월~2027년 2월 출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행지 결정 시 '추운 날씨나 겨울 스포츠'를 우선 고려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7%에 불과했고 실제 계획된 활동에서도 스키·스노보드를 선택한 비율은 국내 여행객의 6%, 해외 여행객의 4%로 최하위를 기록
- 대신 여행객의 42%는 추위를 피해 따뜻한 날씨와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선 시커(Sun Seeker)'형 목적지를 선택했으며, 51%는 날씨가 목적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하였음

< 참고: 럭셔리 여행사 클래식 베케이션스(Classic Vacations)의 연말 예약 통계 >

① 카리브해(전체의 42%): 도미니카공화국이 예약의 31%를 차지했고, 터크스 케이커스(15%), 케이맨 제도(9%), 세인트루시아(9%), 바하마(7%)가 뒤를 이음.
② 멕시코(전체의 32%): 칸쿤(멕시코 예약의 39%)과 코스타 마야(37%)가 양대 산맥을 형성했으며, 로스카보스(15%)와 푸에르토 바야르타(6%)가 꾸준한 수요를 유지
③ 하와이(전체의 20%): 마우이(하와이 예약의 58%)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며 회복세를 입증했고, 오아후(18%), 하와이 아일랜드/빅아일랜드(15%), 카우아이(8%) 순

○ (국내여행) 소도시 산악 럭셔리 휴양지 인기

- 에어비앤비(Airbnb)의 2026년 겨울 여행 데이터에 따르면, 대도시 인근의 소도시 검색량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급증세를 보였으며 뉴욕주 헌터(+37%), 테네시주 세비어빌(+32%), 펜실베이니아주 키더(+25%)가 대표적 수혜지로 꼽힘
- 호텔플래너(HotelPlanner.com) 역시 고액 자산가들이 1박당 1,200~1,800 달러를 지불하며 와이오밍주 테턴 빌리지($1,663), 펜실베이니아주 파밍턴($1,624), 미주리주 리지데일($1,229) 등 한적한 소도시로 향하고 있다고 밝힘

○ (해외여행) 유럽의 독주 체제 완화 및 남반구/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여행 수요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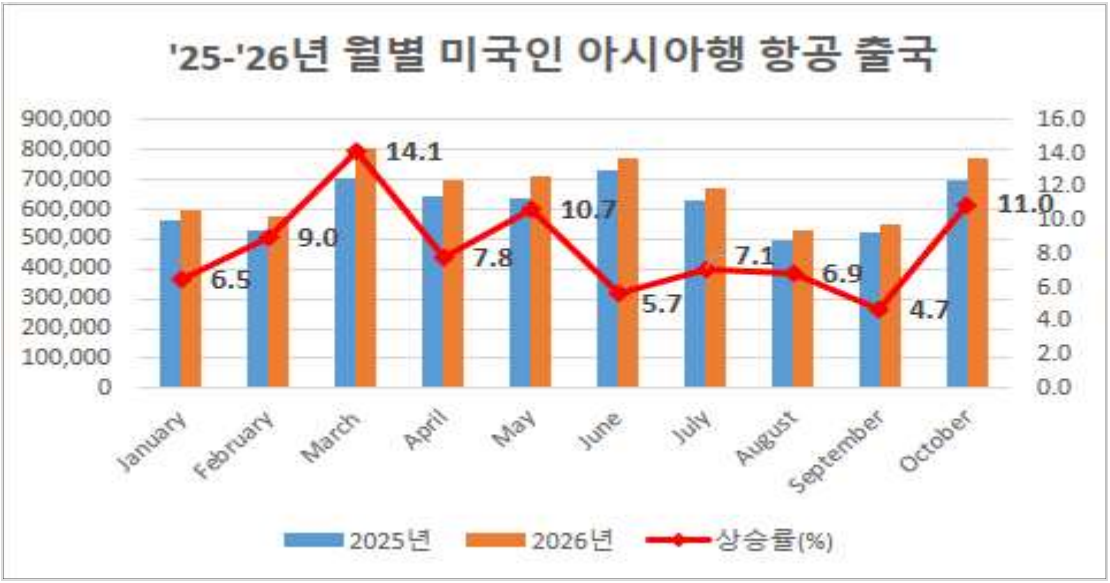
- 맞춤형 여행사 아반티 데스티네이션스(Avanti Destinations)의 2026년 11월~2027년 3월 예약 데이터에서 전체 예약의 60%가 유럽 외 지역으로 집계되었으며, 호주가 단일 국가 예약 1위를 차지하고 이어 이탈리아, 일본,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태국, 코스타리카, 영국, 아르헨티나가 상위 10위권에 포진함

여행 유형 및 권역	주요 인기 목적지 (2026-2027 겨울)	특징
국내 대도시·테마파크	올랜도, 애너하임/LA, 뉴욕시(NYC), 호놀룰루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연말 쇼핑, 가족 단위 테마파크 수요 (AAA)
국내 급부상 소도시	헌터(NY, +37%), 세비어빌(TN, +32%), 비콘(NY)	대도시 근교 드라이브 거리, 자연 속 프라이빗 휴식 (Airbnb, Priceline)
근거리 온난 휴양지	도미니카공화국(미체스), 칸쿤, 코스타 마야, 마우이	추위 회피 및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선호 (Classic Vacations)
유럽 겨울 특화 여행	부다페스트(헝가리), 스위스, 네덜란드, 인스브루크	크리스마스 마켓 및 유럽 리버 크루즈 수요 집중 (AAA, Priceline)
장거리 신흥·남반구	호주(애들레이드), 일본, 베트남(다낭), 코스타리카	계절 역전(남반구 여름) 및 강달러 기반 높은 구매력 (Avanti, Priceline)

3. 아시아 행 겨울 여행 트렌드: 인기 국가 및 핵심 동인

○ 비유럽권 장거리 여행의 부상과 아시아 선호 배경

-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여행관광청(NTTO)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의 아시아행 출국자 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상회하며 전체 해외 출국 시장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



* International Air Travel Statistics Program – APIS I-92 Data, NTTO

- 미국인이 겨울철 아시아를 선택하는 핵심 배경은 크게 세 가지

  · 첫째, 달러 강세*와 현지 물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럭셔리 호텔과 미식을 합리적 가격에 누리는 '트립맥싱(TripMaxxing)'의 최적지

* 11월 24일 달러인덱스(DXY)는 103.81로 연초 대비 약 4% 상승하여 강세를 보이는 중

  · 둘째, 태평양 횡단 직항 노선 증편으로 접근성이 대폭 개선

  · 셋째, 동남아시아의 건기(11월~2월) 기후 이점과 동북아시아의 독보적인 대중문화·미식·도심 쇼핑 인프라의 결합에 의한 인기

○ 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주요 아시아 국가 TOP 6

순위/국가	2026–2027 겨울 주요 인기 도시	트렌드 특성
1위. 일본	도쿄, 교토, 오사카, 삿포로(니세코)	엔화 약세 기반 높은 구매력, 세계 최고 수준의 미식·쇼핑 인프라, 스키 애호가들의 홋카이도 파우더 스노우 원정 수요가 결합된 아시아 압도적 1위 목적지 (Avanti 해외 예약 3위)
2위. 태국	방콕, 푸껫, 치앙마이, 코사무이	북미의 혹한을 피하는 대표적 온난 휴양지('Sun Seeker'). 11~2월 건기 시즌과 맞물려 럭셔리 리조트 휴양, 웰니스 스파, 길거리 미식 투어 수요 폭발 (Avanti 7위)
3위. 한국	서울(성수·명동·홍대), 부산, 제주, 강원(평창)	K-컬처(드라마·음악·뷰티) 팬덤의 성지순례('Set-Jetting'), 미식·카페 투어, 스톱오버에서 단독 목적지로의 위상 격상, 시니어·가족 문화 탐방 증가
4위. 베트남	다낭, 호이안, 하노이, 호찌민, 푸꾸옥	프라이스라인 2027 트렌드 보고서가 선정한 '가성비 럭셔리(TripMaxxing)' 핵심 부상지. 압도적인 물가 경쟁력과 해변 리조트·역사 도시 결합으로 MZ세대 및 장기 체류객 급증
5위. 인도네시아	발리(우붓·스미냑·울루와투)	GLP-1 트렌드 및 마음챙김 열풍과 맞물린 글로벌 웰니스·리트리트 성지. 겨울철 성인 커플 및 솔로 여행객의 요가·스파·풀빌라 장기 투숙 선호 집중
6위. 싱가포르·대만	싱가포르 시티, 타이베이, 지우펀	동남아·동북아 허브 공항을 활용한 다국가 연계('Multi-Country') 여행지. 치안과 위생에 민감한 베이비부머 및 어린 자녀 동반 X세대 가족층의 선호도 우수

4. 세대별 여행 행태와 2027 신흥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 세대별·동반자별 구조 변화: 성인 중심 여행의 주류화

- 스퀘어마우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겨울 여행객의 68%가 '연말 휴가 계획이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부모+자녀 11%, 3세대 대가족 4%)은 전체의 15%에 그침
- 대신 성인 커플 여행이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나홀로 여행(Solo Trip)이 18%, 친구들과의 여행이 13%로 집계되어 전체의 절반 이상(53%)이 1~2인 성인 단위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남

세대 구분	해외여행 비중	자녀중심 휴가 비중	주요 여행 행태 및 소비 특성
침묵의 세대 (SilentGen)	64%	26%	나홀로 여행 비중 최고(22%), 최장 체류(평균 13.91일) 및 최고 지출($10,469), 의료·후송 보험 가입 필수
베이비부머 (Baby Boomers)	67%	28%	커플(41%) 및 성인 가족(24%) 동반 주류, 평균 13.44일 체류, 평균 $10,173 지출하는 핵심 구매층
X세대 (GenX)	67%	39%	전 세대 중 자녀 동반 여행 비중 최고(25%), 국제 보험당 평균 동반 인원 2.47명으로 가족 단위 이동 활발
밀레니얼 (Millennials)	62%	37%	국내 여행 선호도 최고(38%), 해외는 멕시코·바하마·남극 등 이색·휴양지 양극화, 미식·AI 맞춤 여행 주도

○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만든 5대 신흥 마이크로 트렌드

- 프라이스라인과 에어비앤비가 포착한 2026 - 2027 시즌의 소비자 행동 데이터는 여행의 목적이 단순 관광에서 개인의 정체성, 건강 관리, 사회적 관계 재정의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줌

· 프렌즈기빙(Friendsgiving)의 여행화: 추수감사절 전후 친구들과 홈 파티를 열던 문화가 공동 여행으로 진화함. 에어비앤비 플랫폼 내 'Friendsgiving'이 포함된 위시리스트 생성 건수는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했으며, Z세대의 74%는 대도시보다 소도시에서의 그룹 스테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GLP-1 비만치료제 확산에 따른 'GLP VIP' 웰니스 여행: 미국 내 위고비·젭바운드 등 GLP-1 계열 약물 사용자의 급증으로 호텔 선택 기준까지 바꾸고 있음. 프라이스라인 조사에서 GLP-1 사용자의 85%가 약물 복용 이후 밤늦은 룸서비스와 펍 크롤링 대신 새벽 명상 클래스와 스파 마사지를 선택하는 등 여행 방식이 변했다고 답함. 또한 74%는 약물 보관용 객실 내 냉장고, 고단백 식단 메뉴, 근력 운동 시설을 갖춘 'GLP-1 친화적 호텔'이 숙소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함

· 체크마크 체이싱(Checkmark Chasing)과 목적 달성형 여행: 미국인의 80%가 '미국 50개 주 모두 방문하기', '전 세계 모든 대륙 밟기', '유타주 5대 국립공원(Mighty 5) 일주' 등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달성형 여행에 관심을 보였으며, 32%는 이러한 목표 달성이 일생일대의 꿈의 휴가보다 더 큰 만족감을 준다고 답함.

· 휴가 사전 검증(Vacation Vetting)과 로컬 일상 체험: 밀레니얼과 Z세대 사이에서는 이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지인의 일상을 체험하는 '베케이션 베팅'이 확산 중임. 여행 중 현지 식료품점 쇼핑(45%), 평일 오전 동네 카페 방문(28%), 현지 부동산 매물 검색(24%)을 통해 새로운 거주지를 탐색함

· 바이럴 미식(Phone to Table)과 초개인화 AI 플래닝: MZ세대의 80%는 틱톡·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특정 음식이나 간식을 맛보기 위해 전체 여행 일정을 짬. 아울러 전체 여행자의 45%(Z세대 61%, 밀레니얼 62%)는 자신의 성격 유형(MBTI), 가치관, 사랑의 언어 등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초개인화된 '나만의 여행'을 설계하고 있음

< 출처 >

https://www.deloitte.com/us/en/insights/industry/retail-distribution/holiday-travel-survey.html
https://www.hoteldive.com/news/2026-deloitte-holiday-travel-survey/875562/
https://newsroom.aaa.com/2026/11/aaa-thanksgiving-holiday-travel-forecast/
https://cluballiance.aaa.com/the-extra-mile/series/holidays/thanksgiving-travel-forecast-2026
https://newsroom.acg.aaa.com/sc-aaa-815-million-americans-expected-to-travel-for-thanksgiving/
https://www.squaremouth.com/travel-advice/winter-travel-report
https://news.airbnb.com/2026-winter-travel-trends-revealed
https://www.travelagewest.com/holiday-travel-trends-2026
https://www.priceline.com/travel/travel-trends-2027
https://press.priceline.com/priceline-reveals-2027-where-to-next-travel-trends-report-as-americans-find-new-ways-to-make-every-trip-count/
https://www.trade.gov/

붙임 미국 주요 경제지표 현황 및 관광 동향 1부. 끝.

붙임 **미국 주요 경제지표 현황 및 관광 동향**

※ 각 지표의 수치는 수시 업데이트 되어, 현재 공표된 수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경제지표

- (생산자 물가지수)

<2025-2026년 월별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월	25.12월	26.1월	26.2월	26.3월	26.4월	26.5월	26.6월	26.7월	26.8월	26.9월	26.10월
Index	151.47	152.47	153.2	154.39	156.08	156.78	156.56	156.56	157.19	159.23	159.71
전월대비 증감률	0.5%	0.5%	0.5%	0.8%	1.1%	0.5%	△0.1%	0%	0.4%	1.3%	0.3%

* Final demand price indexes 기준

- (소비자 물가지수)

<2025-2026년 월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월	25.12월	26.1월	26.2월	26.3월	26.4월	26.5월	26.6월	26.7월	26.8월	26.9월	26.10월
Index	324.05	325.25	326.79	330.21	333.02	335.12	333.95	334.28	335.62	337.63	338.98
전월대비 증감률	△0.02%	0.2%	0.3%	0.9%	0.6%	0.5%	△0.4%	0.1%	0.4%	0.6%	0.4%

* BLS Consumer Price Index 기준

- (소비자 심리지수) '26년 10월 기준 미국 소비자심리지수는 48로, 전월(48.1) 대비 하락하며 둔화세를 보임.

<2025-2026년 월별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CSI)>

월	25.11월	25.12월	26.1월	26.2월	26.3월	26.4월	26.5월	26.6월	26.7월	26.8월	26.9월	26.10월
Index	51.0	52.9	56.4	56.6	53.3	49.8	44.8	49.5	55.2	51.7	48.1	48

* 출처: 미시건대학교(UMCSENT) 및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FRED)

- (고용동향) 실업률 및 비농업 고용자 수 변화

<2025-2026년 월별 미국 실업률 및 비농업 신규 고용>

월	25.12월	26.1월	26.2월	26.3월	26.4월	26.5월	26.6월	26.7월	26.8월	26.9월	26.10월
실업률	4.4%	4.3%	4.4%	4.3%	4.3%	4.3%	4.2%	4.1%	4.1%	4.2%	4.1%
비농업 신규 고용(명)	+50,000	+160,000	-156,000	+214,000	+148,000	+63,000	+20,000	-23,000	+31,000	+29,000	+165,000

* 출처: 미국 노동통계국(BLS)

ㅇ 업계동향

- (아웃바운드 수요) '26.6월 기준, 해외여행을 다녀온 미국인은 약 5,42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

< 2024-2026 미국 아웃바운드 통계 [출처 : NTTO, U.S Outbound to World Regions] **> 미국**

구분	2024	2025	2026
연간	106,376,575	109,261,808	-
1~10월	88,462,540	90,904,822	54,240,227(1~6월)
전년대비	-	-2.69%	-

ㅇ 주요 경쟁국 미국인 입국통계

국가명	2026년 10월	전년 동기(월)	증감율	비고
대한민국	134,348	121,682	10.4%	'26년 9월 기준
일본	351,500	335,744	4.7%	
베트남	62.505	62.083	-0.68%	
태국	83,525	83,929	0.48%	
필리핀	80,264	78,308	2.5%	'26년 8월 기준
홍콩	45,702	38,529	18.5%	'26년 9월 기준
대만	42,546	39,177	8.6%	'26년 9월 기준
싱가포르	44,929	44,191	1.67%	'26년 9월 기준
말레이시아	21,192	21,152	0.19%	'26년 9월 기준
인도네시아	35,216	33,392	5.46%	'26년 9월 기준

* 2026년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데이터 확인 불가
** 출처: 각 국가별 관광청 홈페이지

< 데이터 출처 >

https://www.eia.gov/dnav/pet/hist/rbrted.htm

https://www.tsa.gov/travel/passenger-volumes

https://www.bls.gov/cpi/factsheets/airline-fares.htm